



마음열기

어떤 여인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은 새벽기도를 나가
고 길게 기도문을 읽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나는 기도가 짧
아서 믿음이 약한가?”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수년간 헌신하며 신앙
생활을 깊이 하고 있었고, 기도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낮추며 마
음속으로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며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 짧은 기도나 적은 헌신이 곧 믿음이 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나눔

1. 아래 질문들에 대해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보세요.

☞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하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열등감을 경험해 본적이 있다
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비교할 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나요? (기도, 헌신, 성경 공부 등)

☞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믿음이 부족한 영역은 어떤 영역이라 생각하나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해본 적이 있나요?

2.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가복음 9:14-29

14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5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16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17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8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뻗뻗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 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1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20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22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십시오.”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24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25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26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7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28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쭙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29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 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문제(14-18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19절)	
귀신들린 소녀의 아버지의 요청(22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23절)	
귀신들린 소녀의 아버지의 대답(24절)	

📖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마음과 상황을 가지고 있었나요?

📖 소년의 아버지처럼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때,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일까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요청하는데 충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며,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주변의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며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때론 그 생각들이 나를 낙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그냥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귀신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 내 문제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당신이 예수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단지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고백을 예수께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당신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솔직함입니다. 내 상태에 대한 솔직함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들 또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했고, 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나요? 믿음이 없다고 여기던 귀신들린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거기엔 뛰어난 기도도, 찬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결단하고 실천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